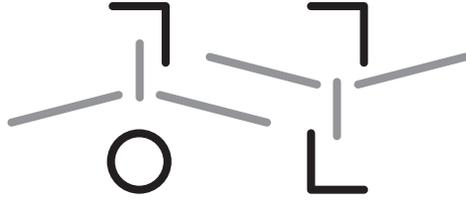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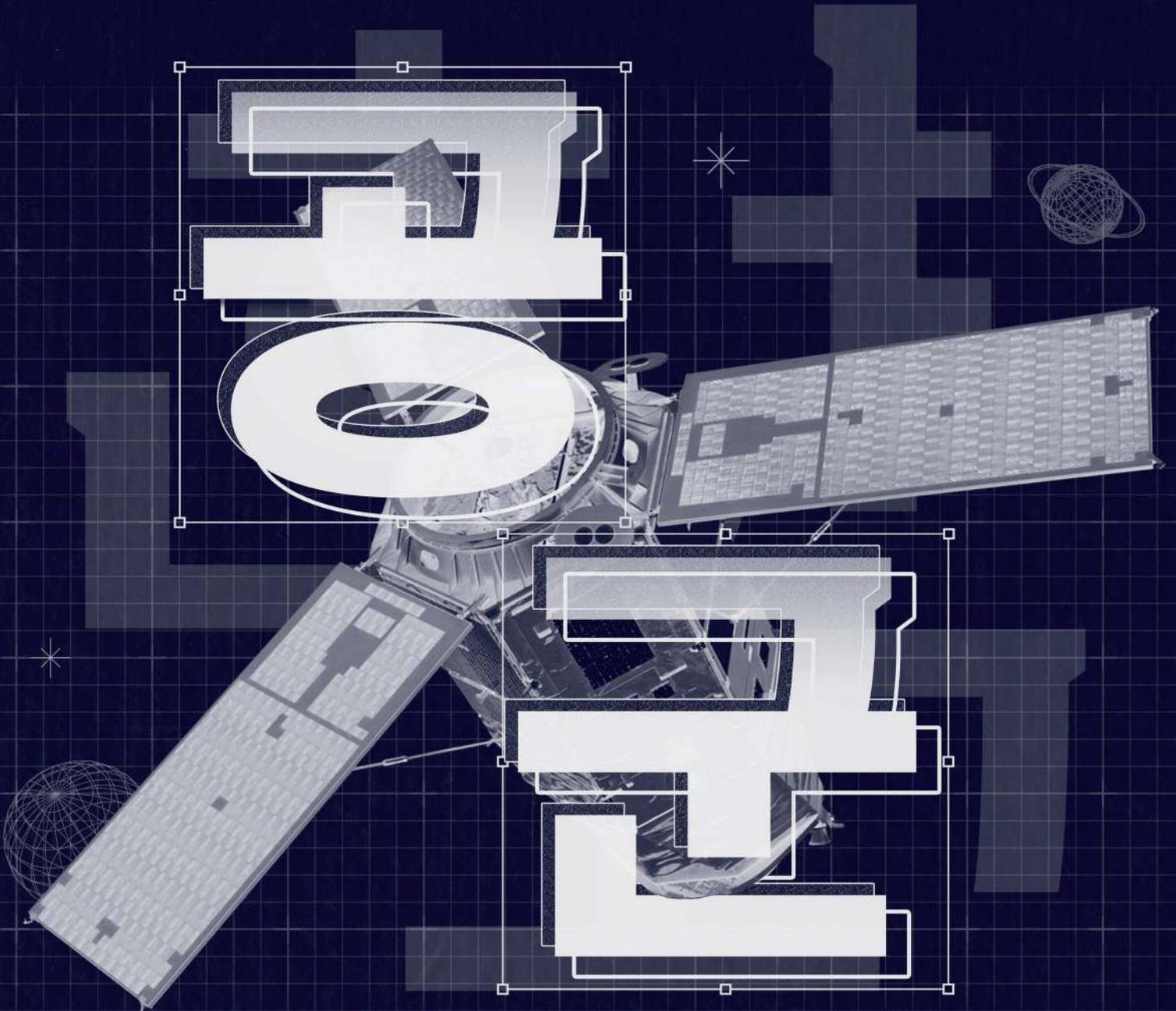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2  
02  
5 2 4

<http://afzine.co.kr>



# Contents

- 04 기획특집                      공군을 새롭게 쓰다
- 10 기획특집                      국산 항공기 FA-50 최초의 탑건을 만나다!
- 
- 16 Aero Detail                    무인전투기와 유무인복합체계(MUM-T)
- 22 무에서 유를                   기사(騎射) - 말을 달리며 활을 쏘다
- 26 내 옆의 공군인                한림대학교 이병기 교수
-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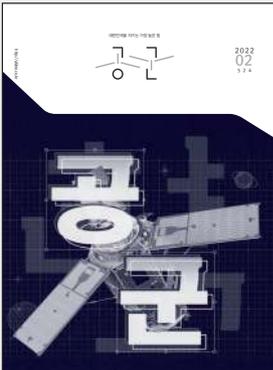


표 지(앞) 공군의 비전을 담은 전용서체와 아리랑3A호 위성(중위 이우빈)  
표 지(뒤) 복을 듬뿍 담은 떡국(자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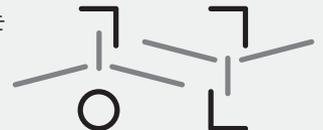
발 행 일 자 2022년 2월 1일(통권 제524호)  
발 행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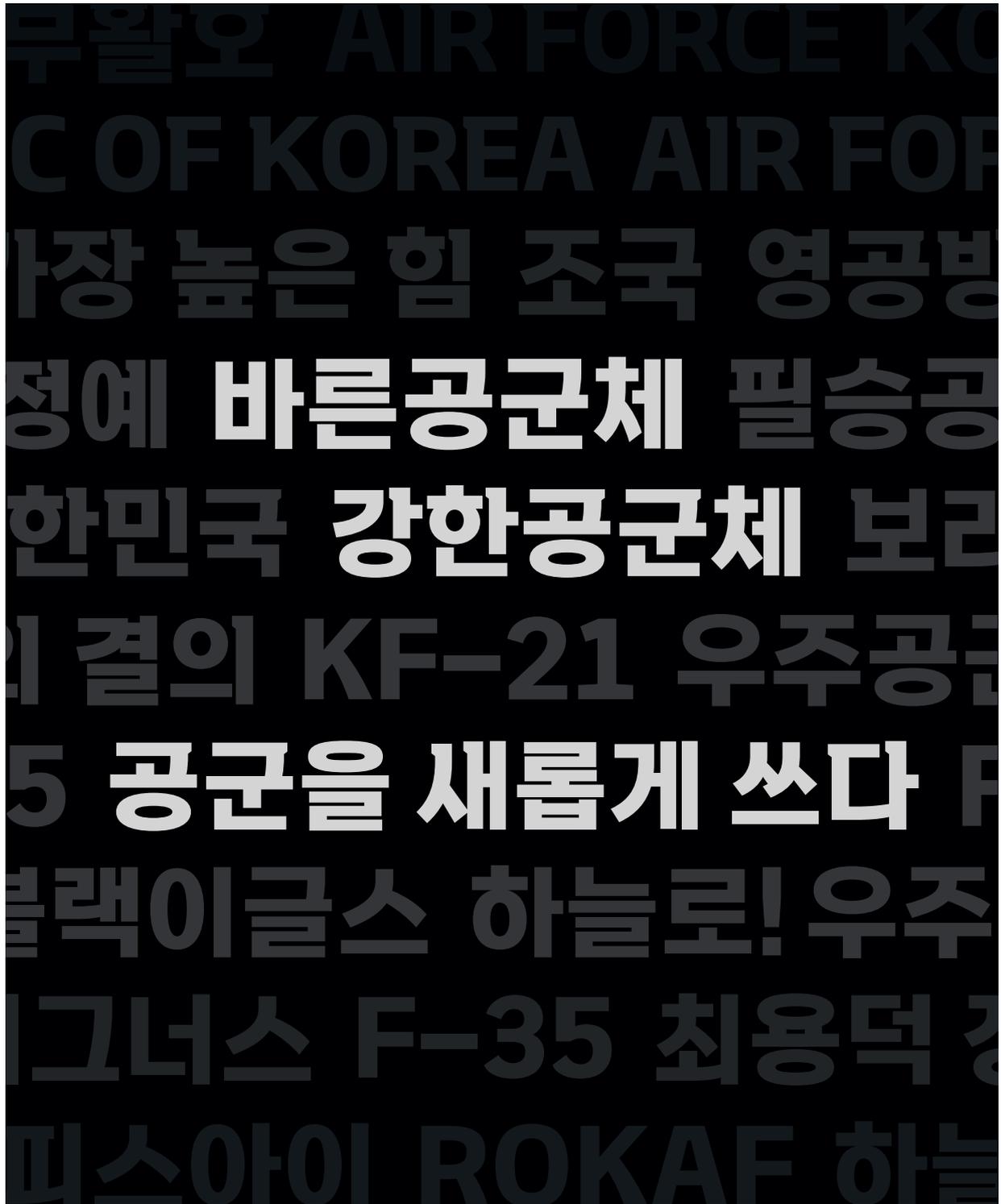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10016)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40	한 달, 한 권	나는 왜 외국어를 공부하는가?
42	명상을 말하다	호기심과 즐거움
44	영화로운 나날	가족, 같이 살거나 피로 묶여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46	클래식 톡톡	지휘자와 연주자
48	트렌드가 보인다	이질적인 도전이 크리에이티브의 시작
<hr/>		
50	생각하는 그림	가장 아름다운 머리
52	공군인의 편지	새순에 눈 녹듯 설레는 날에 (제2방공유도탄여단 예하 8199부대 일병 전언호)
53	책읽는 공군	고통의 양면성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병장 김정래)
54	수용의 미학	알잘딱깔센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글은 글자로부터 시작하고 글자는 ‘글씨’로 표현된다. 글자는 같으나 글씨는 다 다르다. 글씨에는 모양이 있고 강약이 있으며 의미가 있다. 즉, 글씨에는 정체성(Identity)이 있다. 공군이 글씨를 만들었다.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가 바로 그것이다. 군(軍)에서 서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살펴보자.

## # 전용서체가 필요한 이유



서울한강체 L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SEOUL
서울한강체 M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SEOUL
서울한강체 B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SEOUL



국민체 R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국민체 B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서울사이버대학체 L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
서울사이버대학체 M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
서울사이버대학체 B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

세계적인 기업들은 전용서체\*를 갖고 있다. 서체에 철학과 브랜드 이미지, 나아갈 방향을 담아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서체는 소비자에게 있어 기업의 첫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글씨의 생김새만 보고도 특정 기업을 떠올리곤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도 서체 수업을 몰래 수강하곤 했는데, 훗날 애플의 서체는 애플의 혁신에 있어 핵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잡스는 “내 인생의 전환점은 서체 수업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비단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대학까지 전용서체를 제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조직의 가치와 이미지를 홍보한다.

또 전용서체를 갖는다는 것은 홍보와 더불어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 개발업체에 더 이상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며,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전용서체

전용서체는 특정 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서체로, 목적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거나 무료배포를 하기도 한다.

## # 공군이 내놓은 서체



그렇다면 왜 기업도, 대학도 아닌 공군이 서체를 제작했을까? 공군이 운용하는 핵심 전력인 항공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글귀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항공기별로 쓰인 글씨가 제각각이다. 항공기 도입 시기도 각각 다를 뿐더러 공군을 대표하는 서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 가독성이 떨어져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를 보완하고 동시에 하늘을 넘어 우주로 도약하는 공군의 정체성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군전용서체를 개발했다.

## # 바른공군체 특징

# 대한민국공군 ROKAF

# 대한민국공군 ROKAF

바른공군체는 기존 공군 CI\*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고딕서체로, 가독성과 범용성이 뛰어난 본문용 서체다.

###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정체성이나 경영전략 등을 나타내는 기업 문화를 가리키며, 기업 로고나 심벌을 통해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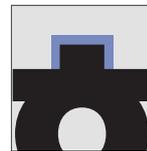
01



#### 곡선의 부드러움

공군 전투력의 핵심, 전투기 노즈의 곡선을 본뜬 이음 보는 ‘고딕은 딱딱하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02



#### 가독성 향상

자음 ‘응’의 세로꼭지를 높게 제작하여 하늘과 우주로 비상하는 공군의 의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글줄에서 ‘응’자가 쉽게 읽히도록 했다.

03



#### 강인한 이미지

네모틀 구조의 헤드라인 서체는 굳건한 영공수호 의지를 표방하는 공군의 강인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04



#### 유연한 이미지

일부 자소를 연결함으로써 기존 공군 CI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 바른공군체 Medium

# 바르고

### 바른공군체 Bold

# 강한 공군

## # 강한공군체 특징

# 대한민국공군 ROK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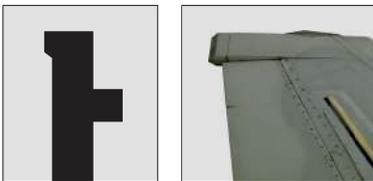
# 대한민국공군 ROKAF

강한공군체는 항공기 꼬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세리프\* 디자인으로, 주목성이 뛰어난 제목용 서체다.

### 세리프(Slab-Serif)

슬랩 세리프(Slab-Serif)디자인은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끌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집트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이집션(Egyptian)이라고도 불린다.

01



### 공군의 비전

항공기와 인공위성 꼬리날개 이미지를 본뜬 디자인으로, 하늘과 우주를 지향하는 공군의 비전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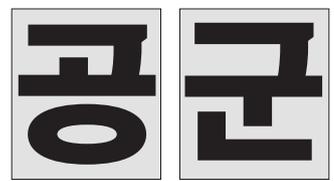
02



### 가로 세리프의 안정감

익숙한 가로 세리프를 활용해 가독성 안정감이 느껴진다.

03



### 유연한 이미지

일부 자소를 연결함으로써 기존 공군 CI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강한공군체 Medium

# 바르고

강한공군체 Bold

# 강한 공군

## #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 모두 한글 2,780자, 영문 95자, 특수문자 737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수문자에는 공군 픽토그램\* 덩벳(Dingbat)\*\*을 481자 추가했다. 픽토그램을 따로 내려받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왔다. Windows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특수문자 입력방식대로 ‘자음+한자’ 키를 입력하면 공군 픽토그램으로 자동 변환되어 출력된다.

### 공군 픽토그램

공군에서 공개한 일종의 아이콘으로 항공기·미사일 등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다양한 사물·시설 등을 알기 쉽게 표현했으며 '21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덩벳(Dingbat)

한글이나 알파벳과 같은 글자가 아닌 심벌, 부호 등 서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이미지로, 공군전용서체 활용 시 단축키를 이용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 ㄷ + 한자키

**ㄷ + 한자**

ㄷ+한자키를 입력했을 때 위와 같이 수확연산자 문자표가 나옵니다.

제공된 공군 픽토그램 위치 확인 후 수확연산자를 입력하면 공군 덩벳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L-4 항공기 역사기종	L-4 (평면)	F-51D	F-51D (평면)	C-47
≤	≥	∞	∴	♂
F-15K (평면)	F-16	F-16 (평면)	F-35A	F-35A (평면)
∅	▽	≡	≡	≡
F-5	F-5 (평면)	FA-50	FA-50 (평면)	KT-1 훈련기

**개수**                      영역 심볼 48종

**픽토그램 종류**        항공기 역사기종  
                                 전투임무기  
                                 훈련기  
                                 수송기  
                                 기타 항공기



### 덩벳 사용 가이드 중 일부 발췌

두 서체 모두 지난 1월 10일 공개되었으며, 대한민국공군 인터넷 홈페이지(rokaf.airforce.mil.kr)와 공감 블로그(www.afplay.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서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기율기나 두께 등 왜곡 변형해 사용할 수 없다. 서체와 함께 덩벳 사용 가이드도 각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앞으로 공군은 전용서체를 항공기 도장, 부대 내 간판, 현수막, 홍보물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 # 공군전용서체 제작 담당자의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우빈 중위, 장형석 병장, 선연우 병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공군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공군전용서체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전용서체는 하늘과 우주를 지향하는 ‘튼튼하고 세련된’ 서체라는 콘셉트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 공군 CI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군인과 국민이 사용하는 서체이니만큼 공군의 의지를 담아 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서체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콘셉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디자인한 초기 서체 시안을 서체 제작업체와 주고받으며 협업했고, 그 결과 4종의 후보를 업체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이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2종이 최종 선정되었고,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공군에도 전용서체가 생긴 만큼 앞으로 사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공군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병장 선연우, 중위 이우빈, 병장 장형석(왼쪽부터)

# 국산 항공기 FA-50 최초의 탑건을 만나다!

## 제8전투비행단 대위 최준상

2021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에서 국산 항공기인 FA-50 조종사 최초로 ‘탑건’의 영예를 얻은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종일관 차분하고 무덤덤해 보였다. 신이 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본인의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평소 하던 대로 비행했다던 그를 보며 왠지 모를 믿음이 생겼다. 단지 대회를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최준상 대위. 강인한 얼굴과 듬직한 모습 못지않은 단단한 정신력은 그가 앞으로 어떤 조종사로 성장할지 기대하게 만든다.





최준상 대위



탑건 수상 트로피



**AF** 먼저 2021년 탑건에 선정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월간 「공군」 구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준상 대위(이하 '최')**: 안녕하세요. 저는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상(만 27세, 학사138) 대위입니다. 2017년에 임관했으며, 2019년에 비행 훈련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재 FA-50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주기종인 FA-50 약 290시간을 포함해 총 470시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F** 현재 비행대대에서 정보편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편대원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나요?

**최**: 저는 정보편대원으로서 첫째로 Link-16<sup>1)</sup>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대와 FA-50 기종 대표로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결과를 대대원에게 전파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항공기 식별 업무로, 주변국 항공기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항공기 식별 절차와 주변국 항공기 기종별 특징을 대대원 전원에게 교육합니다. 이외에도 대대 2기 리더 조종사로서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F** FA-50으로는 역대 최초일뿐더러 21세기 최연소 탑건으로 선정되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탑건으로 선발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탑건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는 믿기지 않아 세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군에는 더 뛰어난 선후배 조종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상이랑 헛갈리셨겠지'하고 생각했지만 제가 탑건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과 동시에,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호흡을 맞췄던 3명의 편조원들,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대대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또 결함 없이 완벽한 항공기를 지원해 준 정비사와 무장사분들 덕분에 탑건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완벽한 임무 수행의 시발점이다.

1) Link-16(전술데이터링크): 전장 상황 인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된 군사전술자료 통신 네트워크로서 전술과 관련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환하여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장비



매 순간 비행 출격을 앞두고 남다른 각오를 다진다.

**AF 전투조종사가 되고 난 후 기종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FA-50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 :** LIFT<sup>2)</sup> 과정 때 TA-50 항공기로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비행 훈련을 하면 할수록 TA-50이 제 조종성향과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종을 선택할 당시 앞으로 제 조종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TA-50에서 개량된 기종인 FA-50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FA-50은 공대공과 공대지 미사일 등 기본 무장은 물론 정밀유도무기 등을 탑재할 수 있고 뛰어난 생존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조종하고 있는 이 기종이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의 대단함을 널리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AF 탑건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최 :** 이번 공중사격대회<sup>3)</sup>만을 위해 따로 노력하거나 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공군 전투조종사로서 강한 체력을 갖추기 위해 하루 2시간 정도 웨이트트레이닝을 했고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매 훈련에 최선을 다했죠. 이번 대회에서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임무에 임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F 이번 공중사격대회에서 공대공 요격 부문은 만점을 획득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최 :** 감사합니다. 훈련 때마다 공대공 요격, 공대지 폭격 임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훈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사실 둘 중 더 자신 있었던 부문은 공대지 폭격이었습니다.



꼼꼼한 기체 점검은 필수다.



2) LIFT(Lead-In Fighter Training): 고등비행교육과정 이수 후 전투임무를 부여받은 신입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입문과정이며, 총 26주간(지상 학술교육 4주 / 비행훈련 22주) 운영된다.

3) 공중사격대회: 공군작전시령부 공중사격대회는 최고의 공중 전투기량을 갖춘 조종사와 대대를 선정하기 위해 1960년 '공군사격대회'로 처음 시작해 2021년, 62회를 맞았다.



**AF** 그렇지 않아도 최 대위님의 대회 성적을 보니 공대지 폭격 부문이 더 눈에 띄네요. 만점에 가까운 점수와 타 참가자들에 비해 월등한 점수네요.(400점 만점 중 395점)

**최** : 상대적으로 공대공 훈련보단 공대지 훈련을 할 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웃음) 이번 대회에서 공대지 사격은 잘했는데 작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5점 감점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대회에는 평소 공대지 사격 훈련 성적의 연평균 값인 개인 CEA(Circular Error Average: 평균원형오차) 점수도 포함되어있어 평소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AF** 이제 막 전투조종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시작점부터 조종사로서 큰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종사로서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까요?

**최** : 이번 일로 딱히 조종사로서의 삶이나 마음가짐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땐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비행 훈련에 임하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탑건 수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제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기에 이번 결과에 크게 들뜨거나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탑건이라는 영예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변함없이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AF** 비교적 짧은 비행 생활이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좋았을 때가 있다면 언제였나요?

**최** : 비행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는 단연 학생조종사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등비행교육과정에서 '내가 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과연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매일 힘들게 했었습니다. 매순간이 평가였을뿐더러 입문,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고등과정까지 왔는데 여기서 탈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 제 자신을 채찍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들 때마다 후회 없이 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최선을 다하자 어느새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좋았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했을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AF** 지난 11월 19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2회 식별됐고 우리 군에서도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대응 비행을 위해 출격하셨는데 심정이 어땠나요?

**최** : 대응 비행을 위해 출격을 앞뒀을 때의 각오는 '평소 훈련한 대로 비행하고 오자'였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는 모든 훈련이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응 비행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임했던 것 같아요. 평소 철저한 훈련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출격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AF KADIZ 상황 발생 시 대응 비행을 출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최 :**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대응절차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대응 비행을 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관계나 전술 상황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한 실제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무 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AF FA-50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최 :** 한마디로 ‘권투 선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근거리 교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FA-50의 모습이 마치 민첩한 권투 선수 같거든요. 제가 복싱을 좋아해서 더욱 그렇게 생각되네요.

**AF 국산 항공기를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최 :** 타국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항공기를 갖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항공기를 제 손으로 직접 조종해 탑건이 되어 더욱 영광이고 대한민국 조종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AF 본인만의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 :** 제 좌우명은 오늘 인터뷰에서도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 없이 살자’입니다. 물론 후회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후회 ‘없이’ 살자고 다짐하면 후회할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늘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히 생각하곤 합니다. 반대로 비행을 할 때는 초기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종사로서의 필수적인 자격조건이기도 하고요.

**AF 혹시 롤모델이나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최 :** 기본비행교육과정 당시 저를 가르쳐주시던 송인동 비행교수님이 생각납니다. 비행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로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군인으로서 살아갈 방향도 잡아주신 분이시죠. 조종사로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님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진실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죠. 이번에 탑건을 수상한 뒤에 연락을 드렸더니 마치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아 덩달아 저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AF** 앞으로 군생활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 : 제 군 생활 목표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투조종사로서 대한민국 영공 수호 임무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토록

힘들었던 고등비행교육과정의 교관이 되어 학생조종사들을 지도해보고 싶어요.

**AF** 마지막으로 전투조종사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 전투조종사가 되는 과정이 길고 또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정말 멋있고 보람찬 직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와 체력관리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고 꿈을 위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조종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워 FA-50 정비사 이대로 상사를 인터뷰했다.  
그는 최 대위의 믿음직한 파트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 안녕하세요. 저는 FA-50 정비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제103정비중대 이대로 상사입니다.

**AF** 본인이 직접 정비한 기체가 탑건을 배출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 매년 개최되는 공중사격대회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에게도 가장 큰 대회입니다. 항상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FA-50이 탑건을 배출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저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비하는 FA-50으로 조종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줘서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얻지 못했을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AF** FA-50 조종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정비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능은 저희가 보증할 테니 어떤 상황이든 믿고 타 주시기 바랍니다. **AF**



이대로 상사



## 무인전투기와 유무인복합체계(MU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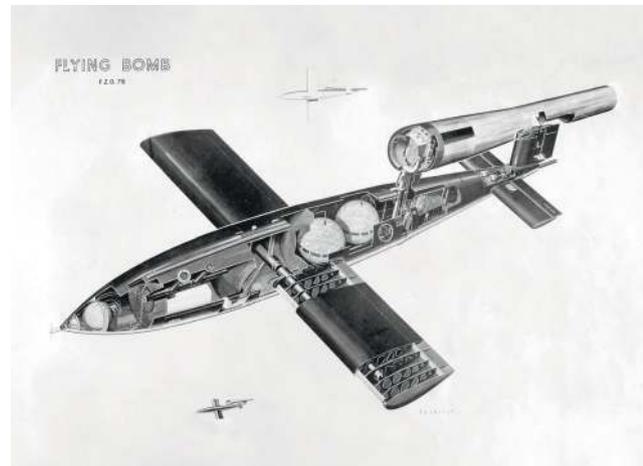
### 무인기 역사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란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통제되거나 스스로 자율비행이 가능한 비행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항공기에 조종사를 위한 공간이나 안전장비,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인기는 유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이면서 가격경쟁력이 높다. 또한 유인기가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한 임무를 인명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공기 중 하나이다.

무인기에 대한 관심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높아졌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배터리를 내장하고, 통제소와는 구리선으로 연결된 무인기를 시험했다. 1917년 영국은 무선조종이 가능한 무인기를 제작하여 비행에 성공시켰다. 하지만 이들 무인기의 성능은 그리 높지 않았다. 미국은 1916년에 자동조종장치를 부착한 무인기를 제작하였으나 비행상태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제작기 대부분이 추락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미국, 영국 등은 초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현대 순항미사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V-1 미사일이다. 무인기와 유사했던 V-1 미사일은 1천 파운드급 탄두를 장착한 채로 시속 400마일의 속도로 2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었다.

한국전 당시만 해도 무인기는 정찰 임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베트남전에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북베트남의 지대공미사일 때문에 많은 항공기 손실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은 적 지대공미사일 유인에 무인기를 활용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무인기는 사진정찰, 전자전 지원, 전자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베트남전에서 수행했다.



V-1 미사일 내부 구조도

중동전에서는 이스라엘 무인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무인기의 잠재능력을 일찍 파악한 이스라엘은 중동전에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아랍 측의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교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무인기 개발을 지속하여 지금은 미국에 버금가는 무인기 개발 선진국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무인기는 항법장치의 발달로 통제가 훨씬 수월해졌고, 센서 역시 전자광학/적외선 센서는 물론 합성개구레이더,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하면서 유인 정찰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은 걸프전에서 발휘되어 이라크군에 대한 표적정보 획득이나 해상 기뢰제거, 해상감시, 이라크 레이더에 대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여 미군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걸프전 이후 무인기는 소말리아 내전, 보스니아전, 코소보전과 같은 지역분쟁에도 투입되어 분쟁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도로망, 분쟁지역 감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현대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 무인전투기와 유무인복합체계(MUM-T)

군용기가 수행하는 임무에도 3D 임무가 있다. 위험하고(Dangerous), 지루하고(Dull), 지저분한(Dirty) 임무가 그것이다. 무인기는 이러한 3D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

무인기의 3D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임무일 것이다. 이러한 임무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임무, 즉 대공제압(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임무다. 무인 전투기(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는 유인기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하여 위험한 대공제압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무인전투기의 등장은 이미 실전에서 예고된 바 있다. 2001년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무인정찰기 MQ-1 프레데터에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여 전과를 올렸다. 1만 km가 넘는 미국 본토에서 아프간의 목표물을 TV로 보면서 원격 공격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무인정찰기를 개조하여 공격 임무에 사용한 것이지만 아프간 전쟁 사례는 미래 전장에서 무인 전투기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 공군이 공개한 무인정찰기 MQ-1 프레데터

아프간 전쟁 사례에서처럼 무인전투기는 단독으로 공격이 가능하지만 유인기의 통제하에 팀을 구성하여 운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운용 시스템을 머티, 즉 유무인복합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라고 한다.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유인기와 함께 향후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성하게 될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무인전투기는 다음과 같다.

## 미국 LCCAT/LCASD/XQ-58/Skyborg



미 공군이 공개한 F-22, F-35, XQ-58 편대비행

2015년, 미 공군은 LCAAT(Low Cost Attritable Aircraft Technology)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고가의 무인전투기가 아닌 저가의 소모성 또는 준소모성 무인전투기 연구에 착수했다. LCAAT 프로그램은 적보다 양적 우위, 반응성, 항속거리, 유연성, 비대칭성 등에서 미 공군이 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LCASD(Low Cost Attritable Strike Demonstrator)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기체가 XQ-58 발키리(Valkyrie) 무인전투기다.

2019년 초도비행에 성공한 XQ-58은 신기술과 상용기술을 적용한 신속한 개발로 낮은 비용을 달성했다. XQ-58은 전투기, 폭격기, 다른 무인기 등과 함께 운용되어 정찰임무를 수행하거나 호위, 대공제압 등 전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LCCAT로 연구된 기술과 LCASD로 구현된 준소모성 무인전투기는 스카이보그(Skyborg) 프로그램으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은 미 공군이 2020년에 시작한 무인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F-22나 F-35, F-15E 등과 함께 운용되는 유무인복합체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스카이보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화, 모듈러 설계 등을 적용한 개방성, 저비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 호주 ATS

ATS(Airpower Teaming System)는 호주 공군과 보잉 호주지사가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다. 2019년 호주 에어쇼에서 공개된 ATS는 이른바 로열 윙맨(Loyal Wingman-Advanced Development Program)으로도 알려져 있다. ATS와 로열 윙맨 명칭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ATS는 타 유인기와의 복합운용이 목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ATS는 E-7A 항공통제기, F-35, F/A-18F와 함께 비행하는 개념도가 공개되었다. ATS는 이들 유인기를 호위하거나 유인기보다 먼저 위협에 접근하여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Boeing이 공개한 ATS 개념도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된 ATS의 기수는 필요에 따라 센서, 임무장비의 교체가 가능하여 탄력적인 임무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무인전투기 운용개념이 재사용 가능한 순항미사일 수준이었다면 ATS와 같은 최선의 무인전투기는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정찰, 감시, 정보, 전자전 임무는 물론 무장을 사용한 공대공 및 공대지 교전 임무까지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Airbus가 공개한 리모트캐리어 개념도

## 독일 리모트 캐리어

리모트 캐리어(Remote Carrier)는 독일 에어버스사의 무인 전투기다. 독일과 프랑스는 차세대 무기체계인 FCAS/NGWS<sup>1)</sup>의 일환으로 6세대 전투기와 무인전투기, 컴뱃 클라우드<sup>2)</sup>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무인전투기에 해당하는 것이 리모트 캐리어다. 제작사는 리모트 캐리어를 받은 무인기, 받은 미사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처럼 리모트 캐리어는 준소모성의 소형 무인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트 캐리어는 6세대 전투기와 복합운용되고, 필요에 따라 수송기에서도 투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리모트 캐리어는 주로 적 방공망에 다수가 침투하여 방공망을 포화시키거나 전자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무인전투기처럼 무장을 사용하여 표적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영국 LANCA

LANCA(Lightweight Affordable Novel Combat Aircraft)는 영국의 무인전투기이다. 영국은 6세대 전투기로 템페스트<sup>3)</sup>를 개발하고 있으며, 템페스트와 함께 복합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전투기가 LANCA이다. LANCA의 세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템페스트가 LANCA 3대와 함께 운용되는 개념도 수준의 자료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LANCA는 템페스트 뿐만 아니라 영국의 F-35와도 복합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국 국방부가 공개한 템페스트와 LANCA 개념도

## 러시아 S-70 오크호트닉

S-70 오크호트닉(Okhotnik) 무인전투기는 러시아 5세대 전투기 Su-57과 더불어 향후 러시아 항공전력의 중심이 될 무기체계이다. S-70 등장 이전에 미그(MIG)사는 스캣(Skat) 무인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을 2000년대 중반에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스캣의 개발은 진전되지 않았고, 스캣에서 연구된 기술은 훗날 수호이 S-70 개발로 이어졌다. S-70의 연구개발은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시제기는 2017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초도비행은 2019년에 이루어졌다.



Sukhoi가 공개한 S-70

1) FCAS/NGWS(Future Combat Air System/Next-Generation Weapon System): 프랑스, 독일의 미래 항공전력 개발 사업

2) 컴뱃 클라우드(Combat Cloud): 다영역의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전력을 향상시키는 개념

3) 템페스트(Tempest): 영국의 6세대 전투기

S-70의 형상은 삼각형의 전익기(Flying wing) 형태로, 미국의 기존 X-47B나 X-45 무인전투기와 유사하다. 엔진은 약 2만 파운드급의 AL-41을 장착하기 때문에 크기는 무인전투기 중에서 대형급에 해당한다. 내부 무기고 또한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서 유인전투기의 주요 무장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S-70은 Su-57의 공대지 공격능력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대(對)스텔스기 탐지, 요격과 같은 공대공 임무까지 수행하여 Su-57의 교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무인전투기 기술적 특징과 전망

무인전투기의 준소모성(Attritable/Reusable) 개념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설계개념이다. 1970년대 이후 전쟁에서 항공전역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았고, 제공권 확보도 일주일 이내에 결정되었다. 따라서 무인전투기도 약 3개월의 작전 또는 비행시간 500시간 수준의 수명을 전술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준소모성 무인전투기는 이러한 수준의 재사용성으로 반복 운용이 가능하고, 고위험 임무에서의 일정 손실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비용은 200만~2,000만 달러 수준으로 미사일보다 비싸지만 유인전투기보다 저렴하여 적과 양적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듈러 개념이다. 준소모성 무인전투기는 플랫폼을 공통화하고, 임무에 따라 센서, 무장을 모듈화하여 교체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행 플랫폼은 저비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 전자전 등의 센서, 임무장비의 비용이 플랫폼보다 더 고가일 수 있다.

앞서 무인기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인기를 포함한 무인체계는 이미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무인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 선진국들은 전투기와 함께 운영할 무인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공중전장은 이제 무인기 없이 상상이 곤란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유무인복합체계를 신속히 구체화하여 시대에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F](#)



### 글쓴이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전문관(항공)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을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논문을 기고했다.

# 공군 신고전화 7979입니다.

군 전화는 [국번없이] 7979, 일반전화는 042-552-7979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7979는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공군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겠습니다.



# 무에서 유를

## 기사(騎射)- 말을 달리며 활을 쏜다



글쓴이 소개\_『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저침없이 말을 달리며 화살을 날린다. 기사(騎射)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무예를 말한다. 누구나 한 번쯤 푸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말을 달려 보는 것이 로망인데, 거기에 활까지 쏘는 꿈은 자유와 야성을 찾는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사는 우리 민족의 시작과 함께 그 맥이 이어지는 전통무예이기도 하다. 북만주 별판을 달리던 고구려 무사들부터 조선시대 왜구를 물리쳤던 군사들도 모두 기사의 달인들이었다. 지금도 고구려 무덤벽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기사의 달인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성계의 뛰어난 기사 솜씨를 극찬하는 내용이 쉽게 등장한다. 이는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기층세력을 규합했던 곳이 지금의 함경도 일대인 동북면 북방이었고, 그곳에서 여진족을 비롯한 이민족과 결전을 거치며 군사적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의 매일 같이 사냥이나 전투를 치렀기에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기사 실력은 이성계를 국왕으로 이끈 가장 주요한 무예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 건국 이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이민족들은 끊임없이 우리 땅의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강물이 콩깍 인 동짓달이면 북방의 주민들은 북방이민족의 말발굽 소리를 늘 경계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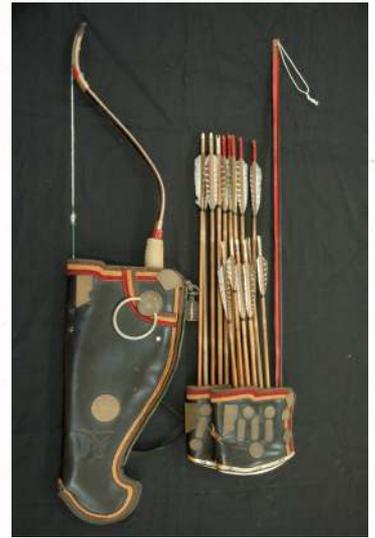
고구려 무덤벽화 <수렵도> 속 기사 장면

강이 얼어붙으면 말을 탄 적들이 도강하여 약탈한 후에도 조선군들에게 반격의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도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북방 이민족 기병들은 가죽이나 두터운 옷감으로 아주 가볍게 갑옷을 만들고, 활과 짧은 칼 하나로 간단하게 무장하여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들을 방어하고 빠르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조선군도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기사가 가장 절실한 무예였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조선을 건국한 후, 처음으로 군사 지휘관을 뽑는 무과(武科)시험의 과목에 기사가 가장 중요한 무예로 채택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문관(文官)을 뽑는 과거시험은 있었지만, 장군이나 가문별 사병(私兵) 체제라서 무예 실력 위주로 군사지휘관을 뽑았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고려의 무신정권시기 최고의 군사 권력자로 부각된 이의민(李義旼)은 천민 출신이었고, 심지어 최씨 무신정권의 끝맺음을 했던 김준(金俊)의 경우는 노비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무예 실력 하나로 그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 반면 조선건국과 맞물려 또 다른 반역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국공신인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개혁세력들이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사병혁파 작업이었다. 개인을 위한 ‘사병(私兵)’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를 위한 ‘공병(公兵)’을 뽑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시험을 만든 것이 무과였다. 무과는 무예 실력으로 장군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초 관문이었다. 물론 실기적인 무예 실력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병학이론과 품성에 관한 이론시험을 함께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군사업무를 풀어가고자 했다.

무과시험 속에 등장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특성을 알 수 있다.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시험에서는 좌우 5개씩, 모두 10개의 원형 목표물을 2열 중대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시험을 보는 사람이 그 사이로 달려나가며 좌우의 표적을 순서대로 맞추는 방식이었다. 이때 같은 열의 표적은 각각 35보(약 42m) 간격이고, 두 열의 사이는 5보(약 6m)로 띄워 놓았다. 또한 표적의 색깔을 붉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배치하여 응시자가 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무과 시험 응시자는 시작점에 따라 좌우의 표적 5개를 지그재그 형태로 쏘았다.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기사에 활용하는 활 장비인 동개의 모습이다. 활을 담은 궁대와 화살을 담은 시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측 허리에 각각 패용한다.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 중 일부 - 17세기 후반 한시각(韓時覺)의 작품으로 북쪽 변방인 함경도 길주목에서 진행된 별시무과(別試武科) 장면이다. 시험장의 형태와 기추(騎筈)에 사용되는 좌우 5개의 추인(筈人) 모습까지도 명확하게 그려 놓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배사법- 파르티안샷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의 기사법이다. 뒤에 쫓아오는 적을 향해 빠르게 몸을 뒤집어 화살을 쏘기에 추격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필자가 몽골에서 마상무예 전지훈련 중 모습이다.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붉은색의 왼편 1과녁을 시작으로 하여 오른편 2과녁, 왼편 3과녁, 오른편 4과녁, 왼편 5과녁의 순서로 쏘는 형태였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면 흰색의 표적을 그와 반대 방향으로 과녁을 쫓아 화살을 쏘게 하였다. 이는 적의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게 달리는 말의 방향에 바꿔 공격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성과 정확성이었다. 목표물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도달하여 정확하게 상대의 심장을 관통시켜야 한다. 적 보병에게 반격거리를 허용하지 않는 한, 최대한 근접해서 말을 몰아 재빠르게 활을 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 보병도 살아 있는 생물체라 끊임 없이 화살을 막거나 피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본다. 때로는 상대의 정면에서 혹은 측면에서, 아니면 전술적으로 도망가듯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 화살을 날려야 했다.

그래서 기사시험에서 응시자가 앞을 향해 말을 달려가면서 앞의 표적을 쏘면 전사(前射)가 되고, 표적과 나란히 옆에서 쏘면 측사(側射)가 되는 것이며, 목표물을 지나쳐 뒤를 향해 쏘면 배사(背射) 혹은 후사(後射)가 되는 것이다.

기마민족의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보여주는 파르티안샷(Parthian shot)의 형태가 쫓아오는 적을 향해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서 쏘는 방식인 배사(背射)의 몸 움직임이다. 그 다양한 마상활쏘기 방식을 그대로 무과의 기사 속에 녹여 낸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표적 뒤편에는 화살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하는 감독관과 관련 시험관들이 여러 명 배치되었다. 마치 연병장 사열대에 시험관이 앉아 있고, 넓은 연병장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는 방식을 연상하면 된다. 그래서 각각의 표적 뒤편에는 화살이 적중하면 북을 치고 붉은 깃발을 흔들며 표시하였고, 반대로 맞지 않으면 징을 치고 흰색깃발을 흔들며 표적의 상황을 중앙의 책임 시험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실제 과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험관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사 시험장이 워낙 넓어 혹시 모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책임 감독관 앞에는 ‘주통(注筒)’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시계를 배치하여 시작부터 최종 목표물 돌파시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만약 응시자가 그 주통의 물이 다 소진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이었다. 당연히 낙마를 하면 탈락이었고, 활을 대충 당겨 쏘거나 말채찍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0점 처리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 무과시험 도중 낙마하여 다리를 다쳤지만, 버드나무껍질로 동여매고 다시 시험을 치렀다는 위인전 속 일화가 공공연히 퍼져있다. 그러나 낙마하는 순간 자동탈락이었고, 시간 초과로 합격 가능성은 0%다. 조선시대 무과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임진왜란기에 기사시험의 목표물이 갑자기 변화하였다. 그래서 그 시험 명칭도 ‘기사(騎射)’에서 ‘기추(騎芻)’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실제 전투 시 활용 가능하도록 표적을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추인: 芻人)로 바꾼 것이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시험의 실전성을 위하여 목표물을 사람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국왕과 신하들의 논의가 공식안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요즘으로 치면 평면성 2D 표적에서 입체형인 3D 형태로 표적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의 전술과 무예는 실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만약 훈련을 위한 훈련이나 이론 혹은 행정을 위한 전술과 무예라면 실전에서는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격형 헬기의 표적 타격 훈련 시 그냥 둥근 원형 선을 향해 발포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정확하게 적의 탱크나 무기 형태를 모형으로 만들거나 최대한 유사하게 그려 넣어 그 실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적의 무기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이뤄져야 더 이상의 아군의 피해도 없을 것이며,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공격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화기조준점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 훈련은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어야만 정교해진다. AF



기사 발사 후 필자의 모습 - 마치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듯이 활시위를 가득 당겼다가 번개처럼 빠르게 발사한다. 당겼던 깍지 손은 새가 날개를 펼치듯 자연스럽게 뒤로 펼쳐진다.

제34화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병기 교수

#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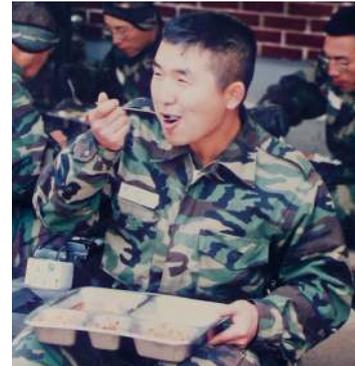
공군 장병과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9기로 임관하여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에서 3년간 정훈장교(現 공보정훈)로 근무한 이병기라고 합니다. 전역 후에는 대학원에 복학하여 박사 학위를 마치고 2006년부터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수로서 17년째 국어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어가 옛날부터 어떤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가슴 한편에 있던 공군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 보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박사과정 중 받은 영장

제가 박사과정을 1999년 2월에 수료할 예정이었어요.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느긋하게 있다가 1998년 12월까지 학업을 마칠 수 없다면 군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시다. 갑작스럽게 군 입영 통보를 받은 것 같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던 공부가 단절되는 것이 걱정되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공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군은 타군에 비해 근무 환경이 낫다고 생각했고, 전공과 군 업무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교로 근무하면서 받은 봉급이 전역 후 학업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죠. 장교로 복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는 약간 반대를 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장교'라 하면 권위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또 복무기간이 일반 병에 비해 길었기 때문에 저를 걱정해줬던 거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군 장교가 되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장교로 복무하면서 변화할 제 시야와 시각이 궁금하기도 해서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험도 거쳐야 했고 당시 경쟁률도 꽤 높아서 단계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사장교후보생 시절 이 교수. 카메라를 들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유난히 밥맛이 좋았던 이 교수의 훈련기간

### 매월 무등산을 오르다

공군 장교로 합격한 이후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었어요. 저는 당시 미디어반원으로서 훈련과 동시에 사진촬영을 했었어요. 대학 시절 사진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 동기들의 모습을 열심히 기록하고 앨범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몸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유난히 밥맛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훈련하는 동안 오히려 살이 더 쪼습니다.(웃음) 이후 저는 당당히 임관했고 특기는 정훈을 배정받았어요. 정훈장교로서 1전비에서 정신전력교육, 공보, 문화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간부, 병사할 것 없이 다양한 장병들을 교육하고 부대 내 훈련이나 장병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했으며 직접 기자들을 만나기도 했었죠. 또 이제는 경연대회에서 항공우주축제로 발전한 Space Challenge 대회 등 부대 개방행사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정훈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매월 무등산을 등산한 것입니다. 당시 대대별 희망

자를 대상으로 집중정신전력교육을 2박 3일 동안 운영했었는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을 인솔하여 매월 무등산에 갔습니다. 무등산은 광주 도심에 있으면서도 해발 1,000m가 넘는 명산이기 때문에 등산할 때마다 정말 좋았습니다. 교육생들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육 막바지에는 등산이 가장 좋았다는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한번은 겨울에 무등산 정상에 있는 한 부대에 협조를 얻어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장병들이 추운 곳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매일 산 정상에서 광주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 좋겠다고도 생각했었죠. 사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지금도 시험이 끝나거나 봄, 가을이 되면 야외수업 명목으로 학교 뒤에 있는 봉의산에 학생들과 함께 오르기도 합니다.



봉의산 등산을 하는 이병기 교수와 학생들

### 공군에서 생긴 소중한 인연들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퇴근 후 부대 인근 대학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하고 지금도 뜬금없이 연락해 안부를 묻는 동기들, 전투 체육의 날에 축구, 탁구, 테니스를 위관장교들과 함께하시던 단장님 등 많은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분은 당시 정훈실장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제가 장교로 근무하면서 권위적인 타성에 물들어 사람을 내려다보게 될 것을 걱정해줬는데 실장님을 만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서는 무섭거나 권위적인 리더가 아니셨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주임원사분을 먼저 존중하시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실장님의 모습을 보면 저도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었죠. 실장님께 참 감사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광주에 놀러 왔을 때, 제 차가 좀 오래되고 작아서 걱정이었습니다.

## 나이가 들면서 얻은 교훈

그때 실장님께서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본인의 차량을 선뜻 빌려주셔서 편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 감사하다는 마음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시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끔 안부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때 참 감사했고,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전비 근무 당시 이병기 중위(왼쪽에서 세 번째)와 정훈실장 이상규 대위(왼쪽에서 네 번째)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당시 저는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수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제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는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 비축하려고 했던 것 같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보일 때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맡은 일을 마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공군과 1전비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장병 교육방법이나 교육의 내용도 더 고민했다면 더욱 즐겁고 유익한 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교수가 된 이후 아주 가끔 국가고시 파견이나 출장 등 외부 일을 할 경우가 있는데, 40대 전후까지만 해도 외부 일을 하는 중에 원래 교수로서 하던 연구나 교육 준비를 병행하려고 해서 둘 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파견을 나가게 되면 그 업무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원래 하던 연구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본업에서 벗어나는 일을 맡아도 그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한 이 교수는 국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군은 나에게  
'창 달린 다락방'**

공군에서의 경험은 어느 경험과 같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표현해보자면 '창 달린 다락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주 찾는 곳은 아니지만 여러 추억이 보관되어 있어 일생생활의 본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 색다른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늘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공군에서 복무하던 시절의 기억과 공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창 달린 다락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보정훈장교로 근무할 당시 부대 견학을 지원하고 있는 이 교수.

그리고 '창 달린 다락방'은 필요한 것을 보관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공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회나 위원회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공군에서 배운 것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도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신전력교육을 하면서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경험은 현재 학생들을 만날 때 전공과목 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중에는 자긍심이 낮고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공부 외적으로 만나 소통할 때 공군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한 교육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군 복무 시절 약간은 나이 많은 청춘이었던 제가 방황하고 고민한 것 자체도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고요. 또 군 복무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결단력과 추진력'입니다. 정훈장교로서 행사 기획, 취재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대개방행사 간 일어나는 돌발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 관람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 대부분은 일도 중요하지만 늘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헤아리려 하는 습관도 몸에 배게 된 것 같습니다.

**'주중  
체력단련'은  
현행유지 중!**

장교였을 때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주중 체력단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교수 테니스회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재직 중인 학교는 수요 일 오후 늦은 시간에 테니스회 정기 모임을 가집니다. 저와 비슷하게 장교 출신인 한 교수님이 그 시간만 되면 지금부터 체력단련 시간이라고 하시고는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리십니다.(웃음) 덕분에 수요일만 되면 설레던 그때가 생각나곤 하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교의 삶과 현재의 삶이 근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취미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는 목표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목표나 꿈을 갖고 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무슨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나이는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시골에 예쁜 집을 짓고 나중에 손자들을 데리고 오면 마당에서 과일도 따주면서 놀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렇듯 목표라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 특히 자주 하는 생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지구에, 그리고 타인에게 해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건강하고 부지런해야겠죠?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하겠고요. 참고로 딸 아이의 질문을 받은 뒤로는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계속 탐색 중입니다.

언젠가 사회로  
진출할  
장병들에게

군 생활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큰 의미 없는 생활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의외로 의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도 지금에 와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반대의 경우보다 사회로 나갈 힘을 더 비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치열한 사회보다 군에서의 자기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책을 읽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요즘은 수불석폰(Phone)인 것 같아요.(웃음) 책을 계속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고 조금씩 읽어보세요. 장편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와 같은 대하소설도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AF







E-737을 엄호하는 KF-16과 F-15K



##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을 여는 F.O. 제거 임무

제10전투비행단은 1월 3일(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와 유도로 상의 이물질(F.O.: Foreign Object) 제거작업을 철저히 수행했다.





## 신년 대비태세 및 방역관리 현장점검

박인호 참모총장은 임인년 새해 첫날, 제16전투비행단 등 3개 부대를 방문했다. 제16전투비행단에서는 FA-50에 탑승해 울릉도와 동해 상공을 비행하며, 비상대기 항공기를 출격시켜 영공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서 방공유도 탄사령부 예하 제8311부대와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785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동계 작전현장과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혹한을 견디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 국립대전현충원 신년 참배



박인호 참모총장은 1월 3일(월), 공군본부 지휘관·참모, 신분별 대표 장병·군무원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했다. 총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높은 경의와 깊은 감사를 바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주 공군’으로 도약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전자광학위성감시 체계 전력화 행사 주관



박인호 참모총장은 1월 5일(수), 작전사령부에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 행사를 주관하고 성공적인 전력화를 위해 헌신한 임무요원들과 사업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용 중인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789부대를 방문해 우주작전 임무현장을 점검하며, “체계 전력화를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우주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군사관학교

### 중위(진) 최현덕, 헌혈 100회 유공 명예장 수상

공군사관학교 소속 최현덕 중위(진)은 헌혈이 가능한 나이부터 헌혈을 시작해 12월 28일(화), 100번째 헌혈을 달성하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유공 명예장을 받았다. 지금까지 모은 헌혈증 100장은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 교육사령부

### 임인년 새해 첫 공군병 입영

1월 10일(월), 교육사령부에 임인년 새해 첫 공군병(834기) 1,700여 명이 입영했다. 교육사는 선별 진료, PCR 검사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를 바탕으로 양성교육훈련 성공 보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제1전투비행단

### '21-3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 실시

제1전투비행단은 1월 13일(목), '21-3차 고등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실시했다. 신임 전투조종사 37명은 약 1년 8개월의 입문-기본-고등비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수여 받았다.



## 제11전투비행단

### 화재 예방 특별점검 및 소방구조 훈련 실시

제11전투비행단은 1월 11일(화), 겨울철 화재사고에 대비해 화재 예방 특별점검 및 항공기 소방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작전지원전대는 부대 내 발화 가능성에 대비해 소화시설과 전기 배선 등을 점검했으며, 항공기 소방구조 훈련을 통해 항공기 화재 상황 시 대응절차를 숙달했다.



## 제15특수임무비행단

### 15비를 빛낸 인물들 시상식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월 7일(금), 2021년 '15비를 빛낸 인물들' 시상식을 개최했다. 상은 한 해 동안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비행단 사건·사고 제로화에 헌신하여, 공군과 비행단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게 돌아갔다.



## 제16전투비행단

### 화생방 신속대응팀 출동훈련 실시

제16전투비행단은 1월 12일(수), 기지 내 화생방테러 대비 화생방 신속대응팀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임무요원들은 화생방 테러의심 상황을 가정해 의심 물질 탐지, 표본 수집 후 인계 등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조치능력을 숙달했다.

# 한 달, 한 권



## 나는 왜 외국어를 공부하는가?

해가 바뀐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설날도 지났으니 이제 완벽하게 새해예요. 한겨울은 지났다고 해도 아직은 바람이 차네요. 저는 기온이 높고 구름 많은 날보다 기온은 낮아도 해가 쨍한 날이 한결 덜 추운데 여러분은 어떤지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고생하실 여러분이 마음에 걸려 여쭙습니다.

이달의 추천 책은 로버트 파우저의 『외국어 학습담』입니다. 해마다 연초는 뭔가를 결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올해는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파우저입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분명 외국인인데, 번역자 이름이 없어요. 왜일까요? 한글로 썼기 때문입니다. 네, 저자 로버트 파우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남성인데 우리 말과 글에 유창합니다. 우리 말뿐 아니라 여러 외국어에 능통한 분인데, 10대 때부터 미국 밖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일본에 살며 일본어를 배웠고 그다음에는 한국에 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독일어와 한문, 중세 한국어를 연이어 배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61년생으로 육십이 넘는 지금도 에스페란토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등 일생에 걸쳐 외국어를 공부해온 분입니다. 그는 여러 외국어를 그저 읽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그 언어들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말로 강의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 책 이전에도 이미 우리 말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로서는 부럽기 그지없는데요.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책 말미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의 저자, 김성우 님의 추천사가 실려 있는데 이 책을 일러 ‘외국어 학습 자서전’이라 표현했더군요. 200% 동의합니다. 저자는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도 알려 주지만 그에 앞서 외국어를 왜 공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는지가 명확하다면 노력의 깊이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명확한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인데, 동기가 확실하면 노력을 하다 잘되지 않거나 회의가 들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애초에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보면 재미없거나 흔들릴 때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평생 외국어를 배우고 익히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말하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처음의 답은 재밌고 보람이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문자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환대받은 사실을 떠올리죠. 백인 남성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자신의 외국어 공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 같죠? 미국 사람을 놀리는 조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을 ‘bilingual’이라 하고 세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은 ‘trilingual’이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뭘까요? 답은 ‘American’ 입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므로 미국 사람들은 굳이 외국어를 익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걸 비꼰 농담이에요. 이처럼 외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절실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저자, 로버트 파우저 씨는 외국어 공부에 몰입했고 그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또 한 겁니다. 더불어,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의 의미도 냉정하게 다시 짚어보고요.

저는 저자가 외국어 학습의 재미와 즐거움 외에 의미를 찾아 묻고 또 묻는 과정을 읽으며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외국어가 아니라 제 일을 놓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저의 첫 번째 커리어는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기자 지망생이었지만 제 뜻과는 달리 광고 회사에 취업이 되어 카피라이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 년만 하고 다시 기자 시험을 보자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해보니 카피라이터 일도 매력이 있

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결국, 제 평생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재미있었음에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의미와 보람이었어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답. 물론 이런 게 없어도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지만 저의 의미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이유와 의미가 명확하면 흔들리는 시간을 겪더라도 끝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어요.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으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데, 이것이 어디 일에만 해당하겠어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마침 우리의 저자도 의미와 보람을 필요로 하는 분이었고 그것을 발견한 후 외국어 공부도, 책의 집필도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 많이 공감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부디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계획들도 뜻하는 대로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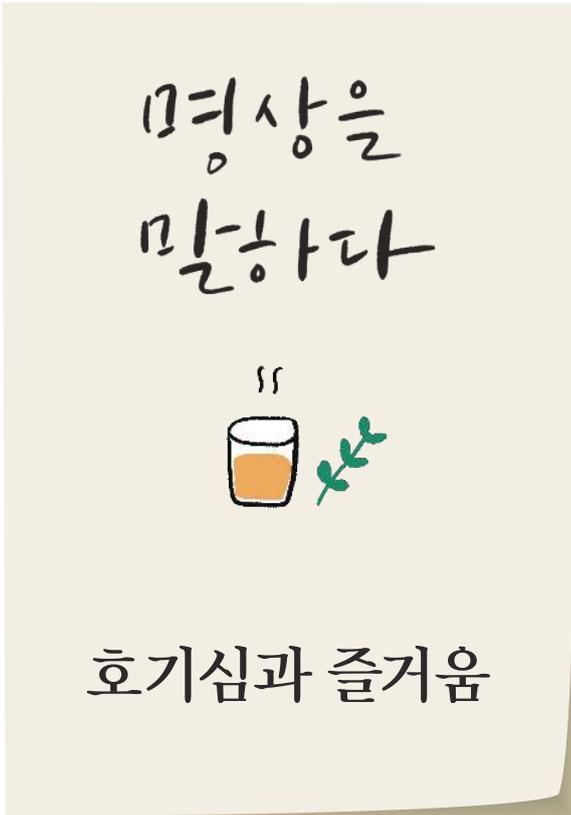


『외국어 학습담』  
로버트 파우저 지음  
해화1117 펴냄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를 일들이 넘쳐나지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렇게 왔다 가는 ‘나’가 있기는 한 걸까? 지구는 어떻게 태양의 주위를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으면서 도는 걸까? 잘 사는 인생은 어떤 걸까? 등등.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든 작든 온통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의미 있고 발전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의문이 많은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 의문도 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발전할 일도 없을 겁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룩하게 된 건 분명 과학의 힘이며, 의문과 호기심이 없었다면 과학의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희한한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밤을 새워 연구하는 4차원 스러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골똘히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요. 제3자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들은 자신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의문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과연 즐거움 없이 가능할까요?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몹시 즐거운 일입니다.

**“명상은 호기심이라는 점에서 과학과 같습니다.”**

명상을 한다는 건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숙고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상은 과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가? 등등을 알아차리고 배워가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호기심과 의문이 없는 사람에게는 명상을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일 것이고 명상을 할 이유도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나의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인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 정체를 드러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명상은 경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합니다. 아무런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세상을 경험하지만, 호기심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자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소와 다를 바 없는 인생아! 너는 굶주렸지만 포도주, 고기, 빵을 먹는 대신, 종이 위에 포도주, 고기, 빵이라 적어 넣고는 그 종이를 먹는구나!”

앞에서 과학자가 의문과 호기심으로 연구를 할 때, 그 자체가 과학자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천신만고 끝에 그 의문이 해결되었을 때의 즐거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명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깊이 있게 지켜보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만일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명상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지속함으로써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하!’ 하고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순간들 역시 명상가들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다시 내 몸과 마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면 아주 거

창한 것들을 떠올리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사소함이나 거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그만 것일 수도 있고, 인생관을 바꿀 정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통찰(insight)들이 쌓여 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발전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각자 맡은 사회적 일과 개인적인 생활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적 업무와 개인적 영역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양쪽 모두에서 지금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만큼 모르는 것도 더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지금의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더는 의문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짐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발전이 있을까요?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포기하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도 없어질 겁니다.

결국,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인생에 대한 호기심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이 더 큰 호기심을 일으켜 인생을 더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과정이 됩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 영화로운 나날



가족, 같이 살거나  
피로 묶여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해외 우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선입견이 있다. 지독히 재미없거나, 예술성에만 치중해 내용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재미보다는 의미에 힘을 주어 만드는 영화의 대중적 흥행이 힘든 것은 맞지만, 작품성과 대중적 흥행 둘 다 챙기며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많다. 매년 칸 영화제 시즌마다 떠올리게 되는 그 이름, 봉준호와 박찬옥은 평단과 대중 양쪽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는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괴물』과 『기생충』 두 편의 영화가 천만영화에 이름을 올린 ‘쌍천만’ 감독이다.

일본 감독 중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떠오른다. 고레에다 감독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감독이다. 1995년 데뷔작인 『환상의 빛』의 베니스 영화제 촬영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8년 71회 칸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의 황금종려상 수상까지 전적이 화려하다. 그의 영화는 대체로 가족을 소재로 삼아 잔잔한 감동을 주며, 인물들의 대사와 연출도 쉽고 담백하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 가족』 등의 영화는 한국 개봉 당시 빅히트까지는 아니지만 관객들에게 꽤 사랑을 받았다.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어느 가족』 이전에 그의 영화 중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던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일 것이다. 영화의 기본 설정 자체가 막장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흥미 위주로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소개해놓은 영상만 열 편이 넘는다. 한 영화 유튜버의 영상 제목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소개해본다. ‘6년간 남의 자식을 키웠다면, 다시 바꿔야 하나!?\_칸 수상작’. 지상과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아이 뒤바뀐’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노노미야 료타(후쿠야마 마사히루)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그는 대기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성공한 건축가다. 부인 미도리(오노 마치코)와 사이에는 6살짜리 아들 케이타(니노미야 케이타)가 있다. 료타의 가족은 도쿄 중심가의 맨션에 살고 있다. 아빠는 돈 잘 벌고, 엄마는 가정적이고, 아들은 공부 잘한다. 웃음꽃이 만개한 따뜻한 가족까지는 아니지만, 구성원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

기 할 일을 해내며 차분한 일상을 보내는 가족이다.

그러던 어느 날 료타 부부는 아들 케이타를 낳았던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를 받는다. 케이타가 이들의 친혈육이 아니라, 병원에서 다른 아이와 뒤바뀐 아이라는 것이다. 전말은 나중에 밝혀지는데,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의 고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이유가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병원의 도움으로 인해 료타는 자신의 진짜 아들 류세이(황 쇼겐)를 키우고 있는 유다이(릴리 프랭키)의 가족들을 만난다. 두 집의 가정환경과 교육관은 극과 극이다. 료타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다소 강박적인 아버지다. 반면 유다이는 시골에서 허름한 전과상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근근이 기르지만, ‘조금 실수하거나 할 일을 미뤄도 괜찮아’라는 관용을 베푸는 따뜻한 아버지다. 성공한 엘리트 남성인 료타는 유다이의 무턱대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다소 경멸한다. 료타는 유다이에 돈을 줄 테니 두 명의 아이를 다 자신에게 달라고 제안했다가 실패하고, 고민 끝에 여태껏 기른 케이타를 유다이의 집으로 보내고 대신 친혈육인 류세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줄거리만 들으면 MSG가 잔뜩 뿌려진 막장스토리다. 고레에다 감독은 이 막장적인 이야기의 전개 사이에 무수한 질문을 뿌려놓는다. 나의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6년간 수많은 추억을 쌓으며 함께 부자지간으로 살아온 세월을 뛰어넘을 정도로 절대적인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수십 번씩 생각해보게 된다. 케이타와 유다이의 가족을 보면서 질문이 또 생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성취를 강요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

다 한없는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영화는 관객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답을 내리게 만든다.

충격적 현실에 처한 료타 역시 영화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는 단계까지 질문을 이어나간다. 료타는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든 잘하려 혼자 발버둥 쳤었는데, 그 모습은 자신의 아들 케이타와 무척이나 닮아있다. 그 순간 료타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가족은 함께 살아온 세월을 통해 서로 닮아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 지점이 모나있을지라도 껴안아 주는 관계다. 영화의 제목처럼 료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외에도 고레에다 감독이 영화 속에서 그리는 가족의 형태는 독특하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만난 이복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는 네 자매의 이야기이고, 『어느 가족』은 피한 방울 안 섞인 6명이 도둑질을 하다가 만난 인연으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야기다.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레에다 감독이 던지는 가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간단치 않으나,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AF**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 클래식 특특



## 지휘자와 연주자

‘클래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수십 명의 연주자로 가득 찬 오케스트라와 하얀 지휘봉을 휘젓는 지휘자다. 보고 있자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지휘자를 딱히 보지도 않는데 지휘자만 혼자 온갖 인상을 쓰며 품만 재는 것 같다. 협연자들도 온갖 인상을 써대며 악기를 연주한다. 그냥 허리 펴고 꼳꼳하게 피아노를 치면 될 것을 고개를 푹 파묻다 손목을 쳐들기도 하고, 바이올린은 활부터 악기까지 온몸으로 휘젓는다.

4세기 전에는 지금 같은 지휘자는 없었다. 대신 사람 키만 한 무거운 철제봉을 제자리에 서서 바닥에 쿵쿵 짚으면서 지휘했는데 그 모양새가 딱 절구질이었다. (그러다 제 발등을 찍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거장 음악가도 있다!) 당시에는 그저 박자 맞추거나 서열을 알아볼 용도였지만, 시대가 발전해서 곡이 섬세하고 어려워지자 전문적으로 지휘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고 19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전문 지휘자가 등장했다.

오래전,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미군 기지에 취재차 갔었는데 웬일로 전략물자와 첨단장비가 가득한 곳에서 촬영을 제지하지 않더라. 지휘관의 대답이 일품이다.

“보고 베껴봐야 못 굴릴 텐데 뭘.”

무기와 장비의 외형과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장비에 탑재된 첨단 소프트웨어와 지휘관의 전략적 운용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다. 누군가 겉모습을 베껴 만들어도 그걸 제대로 다루는 건 별개란 얘기다. 시칫말로 ‘장비빨’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훈련, 경험 없이는 첨단장비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함축하는 대답이었다.

우리는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최종 종결자 레시피로 요리해도 매번 그 맛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재료와 분량을 썼는데도 말이다. 검증된 맛은 수많은 조리로 다져진 숙련된 셰프에게서만 나온다. 혹은 엄마거나.

지휘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다 이번엔 재료가 들어 각각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연주자들이다. 적게는 열댓 명에서 많게는 90여 명까지 연주자들 각각의 생각과 기법을 오케스트라 전체에 의

도된 방향과 색채로 빚어내야 한다.

일단 지휘자는 연습 방향을 결정한다. 곡의 부분마다 빠르거나 강약을 세세하게 다듬고, 악기군별로 음향 밸런스를 결정해가며 연습을 한다. 안되는 부분은 반복연습하며, 지휘자의 검증을 받는다. 그렇게 연습이 거듭될수록 단원들은 지휘자가 요구하는 빠르기와 강약 그리고 연주주법들을 몸에 익히니, 나중에 지휘자 눈빛만 봐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망치고 있는지 알아챌 정도가 된다.

또 지휘자가 지휘할 때,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안 보고, 악보만 보는 모양새도 궁금하다. 사실 공연 전 연주장의 음향과 연주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리허설(re-hearsal: 즉, 다시 듣기라는 뜻이다)에 참여해본 연주자들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리허설 중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리면 그 즉시 연주가 중단된다. 아직 곡이 손에 익지 않아 악보 보느라 여념 없는 일부 악기가 1~2초가량 혼자 연주하다가 멧쩍은 듯 그제야 멈추는데, 지휘가 멈춘 것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의 파트를 쫓아가기도 바빴단 걸 들켰기에 더 뻔뻔하다. 그래서 눈은 악보를 보지만 신경은 온통 지휘자에게 두고 있다가 언제 건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연주자들이다. 일반인이 볼 때는 윗통수와 옆통수(?)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연주자의 시야가 넓다. 연주 중에 지휘자는 어떤 방법으로건 원하는 색채와 느낌을 뽑아내기 위해 단원들과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고, 표정으로 그에 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응해준다. 어려웠던 구간을 해내면 환한 미소를 보내 격려하고, 주의해야 할 구간에 이르러선 엄숙한 표정으로 연주자들을 긴장시킨다. 경직된 건 부드럽게, 늘어진 건 단단하게 조여가며 운전한다. 그 과정이 지휘의 모습이다.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그토록 심오한 표정

을 지으며 연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손가락 운지법이 아닌, 곡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온몸을 써서 원하는 표현이 나오도록 터치와 느낌을 바꿔본다. 손가락과 손목 스냅만으론 부족하기에 어깨에서 팔까지 무게를 전달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허리부터 온 무게중심을 이동시켜가며 터치와 빛깔을 조정한다. 기계가 아니기에 매 순간 근육의 긴장도와 힘의 균형이 미세하게 다르니, 그 느낌을 최적으로 평준화시키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며 자세와 주법을 연마한다. 농구의 자유투처럼 천문학적인 몸값의 슈터도 단 한 번의 자유투에 실패할 수 있기에 연주 때 그 감각을 동일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수없이 반복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연주자다. 그렇게 무대에서 결실을 맺을 때 연주자의 감정은 오롯이 표정에 나타난다. 그래서 지휘자와 연주자의 몸짓과 표정은 연습에서 무대까지의 여정을 고스란히 비춰낸다.

클래식이 줄릴 수 있다. 그리고 바둑, 야구, 골프, 당구, 게임 방송도 물을 모르면 그저 즐리다.

모르고 보면 저게 뭘 재민가 싶지만, 알고 나면 과정을 복기하고 향후를 예측해가며 손에 땀을 쥐다, 딱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건 클래식과 스포츠가 다를 게 없다. AF



글쓴이

목원대 교수, 오페라 가수

# TREND

## 트 렌 드 가 보 인 다

## 이질적인 도전이 크리에이티브의 시작

평범한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이질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질적인 상황이 신선하다면 우리는 이색적이라 말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면 창의적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은 이질적이지만 신선한 기획과 분명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 “아프리카 여성들은 매일 42.195km를 걷습니다”

2015년 파리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파리 마라톤 대회는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달릴 수 있는 오픈형 대회입니다. 마라톤 출발 대기선에 서 있는 아프리카 여성 선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상복은 고사하고 운동화도 신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프리카 전통복장에 머리에 물동이까지 이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이질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선수들과 관객들은 “설마 저런 물동이를 이고 뛰냐고?”라며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총성과 동시에 선수들이 달려나갔고 그녀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 때문에 뛰지는 못했지만, 달려가는 선수들 사이에서 물동이를 이고 천천히 걷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이었습니다. 구경 나온 파리 시민들, 함께 달리는 선수들과 언론과 방송사 기자들이 그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온 누구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안내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에 건 안내판에는 “아프리카 여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42.195km를 걷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온 그녀는 아프리카 대륙의 물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라톤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42.195km는 누구에게는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매일 직면하는 생존의 거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출처 : gettyimages



출처 : Water for Africa



이번 행사는 ‘Water for Africa’라는 글로벌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물 부족 사태’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공공 캠페인입니다. ‘Water for Africa’의 홍보팀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아프리카의 물 부족이란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게 유도할까?”였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여성들은 매일 20~40km를 걸어 4인 가족의 하루 사용량인 20kg의 물을 머리에 이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은 물을 구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20~40km의 거리를 타 대륙의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20~40km의 거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해당 팀이 찾아낸 개념이 42.195km의 마라톤입니다. 육상 선수들도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의 거리를 아프리카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루틴처럼 감당해 내고 있다는 것을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로 결정했습니다.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전 세계 1,200만 명이 TV 중계를 시청했고, 1,450만 명이 웹사이트 캠페인 영상을 클릭했으며, 1,070만 명이 라디오 뉴스를 청취했습니다. CNN, BBC 등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소식을 전했고 깐느, 클리어드 등의 세계 최고의 국제 광고제를 석권하여 2015년 가장 창의적인 공공 캠페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창의성이란 이질적이거나 이색적인 기획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 되었을 때 창의성 높은 캠페인으로 평가합니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등장한 여성의 모습은 이질적이었지만, 실제 마라톤에 참여하여 걷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색적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목에 걸린 안내판의 문구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질적인 상황을 이색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킨 후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 표현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죠. [AF](#)



### 글쓴이

홍보회사 플랜얼라이언스 대표. 국방부 장병사랑 캠페인, 인천공항 브랜딩 캠페인, 아디다스, SKT 등 국내외 브랜드의 통합 캠페인을 20년간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 가장 아름다운 머리



미국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던 내 야수 마이크 아빌레스(Mike Aviles)는 2015년 극도의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부진으로 팀 또한 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의 구단주 폴 돌란(Paul Dolan)은 그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에서 마이크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의 딸 아드리아나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빡빡한 경기일정 때문에 마이크는 항암치료를 받던 아드리아나의 곁에 있어줄 수 없었고, 딸에 대한 걱정과 부담 때문에 마이크는 부진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구단주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며, 마이크에게 열흘의 특별휴가를 주었습니다. 마이크는 열흘 동안 딸에게 달려가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딸은 아빠와의 시간에 무척 기뻐했지만, 늘 거울을 보며 속상했습니다. 독한 항암치료로 아드리아나의 머리 카락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이크는 아드리아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자신 또한 삭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대머리가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드리아나는 조금이나마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마이크가 다시 구단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구단의 노력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27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에서 놀랍게도 클리블랜드 선수들, 감독과 코치진, 심지어 구단주까지 모두 전원 식발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마이크의 사연을 동료 선수들이 전해 듣자, 마이크와 그의 딸을 응원하기 위해 식발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팀원 모두는 물론 구단주까지 식발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경기를 보러 입장한 관중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사연을 듣고 그들의 동료애에 눈시울을 붉히며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구장에서 반짝였던 머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머리들이었습니다. 구단주의 작은 배려에, 단원들의 작은 행동에 한 선수는 위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드리아나는 성원에 힘입어 백혈병을 이겨냈고, 마이크는 부진에서 멋지게 벗어나며, 팀에 좋은 성적을 뒷받침했습니다. 동료를 생각하는 작은 인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선물을 선사한 것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전우가 있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겨냈던 클리블랜드 선수들처럼, 전우를 위해 따뜻한 전우애를 보입시다. AF**



#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전연호(제2방공유도탄여단 예하 8199부대)

## 새순에 눈 녹듯 설레는 날에

엄마, 아빠! 큰아들입니다. 보내주신 소포 잘 받았습  
니다. 먼 길 건너온 소중한 상자입니다. 침대 아래에  
조심스레 놓아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며칠 하늘이 맑아 기운이 납니다. 자대에 왔다는  
사실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일주일이 지나고, 훈련소  
와 특기학교에서의 일들이 어느새 어렵습니다. 가  
장 추운 날들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힘든 시기를 겪  
어 이룰 수 있는 안정 같습니다.

어제 노트를 펼쳐 예전 기록들을 읽어보다, “부모님  
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린 건 아닐까,”라고 쓴 페이  
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특기학교에서 면회 신청 전  
화를 드릴 때였을 겁니다. 면회 날짜가 정해지고 당연  
히 오시겠단 말씀에 내심 기뻐지만, 오시는 새벽길이  
녹록지 않음을 알아서 망설여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  
여 만의 상봉. 그 한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기대되  
면서도, 이른 시각 달려오실 부모님과 동생을 생각하  
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마음은, 오  
늘 무리해서라도 뵈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이었  
습니다. 6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는 처음이었고, 너무 반

갑고 좋아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모습  
에 안도하시는 엄마, 군인다운 자세에 흐뭇해하시는  
아빠와 동생을 보며 ‘아, 훈련소 잘 버텼다! 잘 배웠  
다.’ 생각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그러셨겠지요. 이젠  
정말 걱정 안 된다는 말씀에서 얼마나 맘 졸여 오셨는  
지가 느껴져 코끝이 시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제가 속한 곳에서 좋은 사람으  
로 자취를 남길 때 저는 부모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  
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건 모두 부모님께서 먼저 보여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  
로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가을이 지나가던 11월, 저를 맞이하던 나무들은 어느  
덧 허물을 벗어 봄을 준비합니다. 비록 갑갑한 생활일  
지라도, 그 속에서 시간에 마주 서는 법을 배우고 있  
습니다. 내일의 하늘을 기대할 수 있고, 밤의 별 앞에  
서 색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온전히 서 있다  
는 반증일 것입니다. 올해는 봄을 기다리기보다 겨울  
을 배움하며 1월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순에 눈  
녹듯 설레는 날에, 기쁜 맘으로 뵈러 갈게  
요! 언제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kyhmm6262@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 책읽는 공군

글 | 병장 김정래(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 고통의 양면성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고통을 겪으며 흘러갑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고달프게 합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와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온 이민진은 소설 『파친코』를 통해 이러한 고통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친코』는 190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4대에 걸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인이었던 훈이와 양진 부부를 시작으로, 그들의 딸인 선자, 선자의 아들 노아와 모자수, 그리고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까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을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다루는 주된 고통은 선자와 그녀의 남편 백이삭 목사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삭의 형 요셉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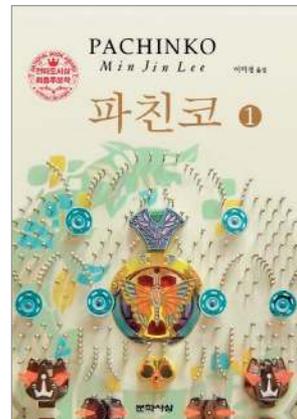
그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던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일본인들이 꺼리던 일들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갔고, 아이들은 차별이 일상화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 내에서는 그들을 일본인이라며 차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혼란스럽기만 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들의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선자 가족의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이겨내며 성장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

아내기도 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선자와 이삭, 그리고 요셉과 경희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을 바탕으로, 노아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여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고, 모자수는 파친코 사업에 성공해 가난에 허덕이던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책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작가가 이야기의 시작과 동시에 그들은 버텨낼 것이라고 넌지시 이정표를 던져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모자수의 아들인 솔로몬마저도 이민자의 삶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며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그들은 버텨냈고 성장했습니다.

800쪽에 달하는 긴 이야기를 읽은 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성장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예쁘게 자라나듯, 우리의 인생도 고통 없이는 울곧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든, 그것을 낙담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정진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F**



『파친코』  
이민진 지음  
도서출판 문학사상 펴냄

#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 알잘딱깔센

최근 유행하는 한 온라인 예능에서 MZ 세대의 언어 사용을 풍자하는 코너가 화제가 되었다. ‘어쩔티비’, ‘킹받네’처럼 줄임말과 신조어들이 출연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말은 바로 ‘알잘딱깔센’이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이 말. 이 말의 뜻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이 신조어는 본디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였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기업 광고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로 인테리어 업종에서 고객과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한 맞춤형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활용한다. ‘알잘딱깔센’ 이 말의 뜻처럼, 앞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나의 기호와 취향을 저격한 제품들이 사랑받고,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신조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신조어는 당시 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알잘딱깔센’의 시대에 살게끔 만들었다.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환경은 모두 내 취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고 또 조성되어 있다. 핸드폰 속에서는 우리의 주요 관심 분야에 맞춘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몇 번의 손가락질이면 알아서 다 잘 처리해준다. ‘알잘딱깔센’이 현대 사회의 장점이자, 우리 생활에 주는 가장 큰 편리함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맞춤형 환경이 주는 편리함은 사람 간의 관계에는 독이 되었다. ‘알잘딱깔센’에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는 타인에게도 이를 요구한다. 초코파이 광고에서 나왔던 유명한 문구 ‘말하지 않아도 알아’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조금 맞지 않으면, 마치 나의 취향과 맞지 않는 제품처럼 내다 버리기 일쑤다. 그리고는 생각한다. ‘아무도 내 맘을 몰라.’

‘알잘딱깔센’의 시대에서 우리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렸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은 그 누구와 관계를 맺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찾기보다, 상대방의 흠에서 찾으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다. 맞지 않는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채우고,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잘딱깔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알잘딱깔센’으로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알잘딱깔센’이지 않다.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서로의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 아닐까?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오고 가는 따뜻한 말 속에 서로가 선뜻 양보할 수 있는 수용의 자세를 가지길 기대한다. 

# 마음의 소리

## 이수복

soobok\*\*@naver.com

예비역 공군인으로 매월 공군지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현역시절 때 나왔던 공군지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이드된 느낌을 받아서 좋네요. 1월호에서 우주작전대를 소개했는데 이제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방어 하는 공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영공방어를 위해 힘쓰시는 공군 전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F. 공군지가 업그레이드된 것 같다는 독자님의 의견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월간 「공군」은 대한민국공군의 위상 제고와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꾸준히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김은경

90w\*\*@naver.com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항공선진국의 6세대 미래 첨단 전투기 개발 동향을 흥미롭게 읽었어요. 전투기 관련 기술연구나 체계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 획득을 고민해야 한다는 임상민 박사님의 제언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공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전투기 전력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AF. 신년을 맞이해 새롭게 시작하는 「Aero Detail」 코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민 박사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께 전문적인 항공 지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우익

wikja\*\*@naver.com

조선시대 무사 복장을 하고 환도를 뽑아 먹잇감을 공격하는 송골매처럼, 신속하게 적을 공격하고 있는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의 연무와 무예시범을 보았습니다. 조선 무사들의 격렬한 육박전에서, 활이나 창검을 활용한 마상무예와 기병 전술에서 조선 무예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AF. 새로운 코너 「무에서 유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호의 주제인 기사(騎射)에 이어 앞으로도 전통무예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 코드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http://www.afzine.co.kr))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2 4



5 2 4